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폭력

이성식* / 황지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에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오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나 개인특성요인이외에 사이버공간이나 인터넷사이트의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재학중인 남녀중학생 576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의 집합적 효율성, 즉 사이버공간이나 개별 인터넷사이트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원들간의 신뢰나 언어폭력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수준으로서의 사회환경적 특성이 사이버언어폭력에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 및 일탈행위에 대한 비공식 제재 및 인터넷 시민문화의 형성을 통한 사이버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사회학과

I. 서론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공간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듯이, 사이버공간 역시 단순한 기계적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가진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습득과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범죄공간으로 이용되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이나 범죄에 대한 실태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중 다른 여러 유형보다도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 비방, 명예훼손, 심지어 위협에 이르는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목격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성동규, 2006; 이성식, 2006a).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법제도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법·제도를 통한 통제나 기술적 통제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이버범죄 횡수나 그 유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규정이나 처벌조항의 신설 등을 통한 정부의 대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자유의 공간에서 일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어려우며, 더욱이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사법적 대책은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또한 한계를 가진다. 기술적 통제를 통한 해결 방안 역시 효율적이지 못하다. 무한히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기술로써 대응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몇 인

터넷사이트에서는 특정 용어의 차단이나 필터링을 통해 사이버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는 시민사회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이나 자율규제, 혹은 e-거버넌스 등의 용어가 언급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이성식, 2006c). 즉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의 형성, 규범의 마련 및 이를 통한 구성원간의 사회통제가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구성원들의 관계, 규범 또는 시민들의 참여의 관점에서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연구는 익명성, 개인의 성향이나 심리사회적 특성요인에 주로 주목해 왔다(Lea et al., 1992; 이철선, 2003; 이성식, 2004). 그렇지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왔던 익명성이나 개인성향요인 이외에도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구성원들간의 유대, 신뢰감 및 구성원들의 상호규제 및 비공식적 통제력의 수준이 사이버언어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인터넷사이트별 속성이 과연 개인의 사이버언어폭력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각 사이트별 속성이 개인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실의 지역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는 집합적 효율성(Sampson et al., 1997)의 개념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인터넷사이트별 구성원들의 사회자본과 비공식적 통제력의 집합적 효율성 수준을 그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루려고 하며, 그 영향력을 실제로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이버언어폭력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

Shaw와 McKay의 사회해체이론(1969)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

어 개인의 특성을 원인으로 하는 미시적 차원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는 거시이론이다. Shaw와 McKay에 따르면 사회구조적 특성으로서 지역의 빈곤, 인종의 다양성, 이동성이 높을수록 그 지역은 범죄율이 높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이웃 간의 연결망이나 유대, 결속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해체이론은 이후 체계이론(Kasarda and Janowitz, 1974)으로 발전하였고, 지역사회를 단순한 거주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 간에 친밀하고, 유대가 있으며, 결속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주민들 간의 친밀감이나 유대가 낮을 때 사회해체 정도가 높아져 결국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최근의 다양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연결망이나 유대가 낮을수록 지역의 범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ursik and Grasmick, 1993; Silver and Miller, 2004).

하지만 지역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가 항상 범죄를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ilson(1996)과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와 연결망은 적절한 사회통제 수준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하거나 주 사회와 고립되고, 범죄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은 비록 그 구성원들 간의 유대가 높다 하더라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비공식적 통제수준이 낮아 오히려 범죄행위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Villarreal과 Silva(2006) 또한 지역적 특성이 각 지역의 범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빈곤하고 거주환경이 불안정한 빈민지역일수록 구성원 간에 높은 응집력을 가지게 되어 범죄가 통제되거나 예방되기 보다는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구성원 간에 형성된 강한 유대감이나 응집력이 필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Granovetter(1973)는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강한 유대나 친밀감보다는 구성원 간에 덜 친밀하고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은 ‘약한 유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Bellair(1997)의 연구에서도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작용 활동의 빈도가 낮을수록-예를 들면, 일년에 한번이나 또는 그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도, 절도 등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약한 유대가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요소임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강한 연결망이나 유대보다는 강한 유대감이 없이도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사회통제를 위한 기대감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Sampson과 동료들(1997)은 집합적 효율성을 첫째, 지역구성원들간의 응집력 또는 신뢰감(social cohesion/trust), 그리고 둘째 요소로 사회통제를 위한 공유된 기대감으로서의 비공식적 통제력(informal social control)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지역주민들 간에 응집력과 신뢰가 높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범죄에 얼마나 통제력을 가하는가가 범죄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집합적 효율성은 주민들 간의 강한 유대나 연결망을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민들 간의 약한 유대를 통해 집합적 효율성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 및 비공식적 통제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행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응집력/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비공식적 통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집합적 효율성의 영향력은 다양한 경험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의 범죄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Sampson et al., 1997; Sampson and Raud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Gibson et al., 2002).

이러한 집합적 효율성의 논의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과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회자본은 협력된 행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로, 특별히 신뢰는 단순히 연결망을 넘어 감시와 통제없이도 자발적으로 서로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는 집합적 효율성에서 강조되는 응집력/신뢰의 요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집합적 효율성에서와 같이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주요 요소는 시민들의 사회참여이며(Putnam, 2000:137),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공동체문화가 형성되며, 이는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Messener et al., 2004; Coster et al., 2006).

2.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집합적 효율성 및 사회자본의 역할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 또한 변화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은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어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정보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문화와 규범,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시민들은 시민사회영역에서 자발적 참여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게 되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예방에 있어서도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통제기제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tzioni(2001)는 정부 주도적 하향식 규제보다 구성원들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규제와 공동체질서의 확립은 더욱 효과적이며, 그 방식을 통해 도덕적 문화가 성립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시민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등 외부세력에 의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시민 스스로에 의한 사회규제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이성식, 2006c).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의 역할 및 그 중요성과 관련하여 정찬모(2003)는 다음 포털사이트의 사이버공동체 운영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동체 규범 실태 조사를 통해 응답자와 운영자의 상당수가 사이버규범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현실규범에서보다 더 많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규범의 제정과 실천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장종인(2006) 또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려는 ‘보안 우선주의’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사이버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및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시민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시민들에 의한 공동체 구성과 문화규범의 역할은 중요한데, 인터넷공간이나 인터넷사이트의 환경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성식(2004)은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사이트 게시판이나 채팅방 등에서의 플레이밍의 수용도나 문화규범의 영향력이 익명성이나 개인태도를 비롯한 다

른 요인들보다도 사이버플레이밍에 가장 강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해 연구한 성동규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도 정보통신윤리의식이 강화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사이버폭력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시민들의 정보통신윤리의식의 향상이 실제적인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앞에서 논의하였던 구성원들에 의한 집합적 효율성 및 사회자본의 형성은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적 효율성이나 사회자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뢰와 유대감의 구축을 통한 사회통제의 기능은 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 공동체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이들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과 비공식적 통제력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또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e-Clean Korea 캠페인, 사이버패트롤, 청소년패트롤 등 민간영역에서의 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공간의 환경적 특성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이나 시민참여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효율성 혹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과연 사이버언어폭력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에 주목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참여로 형성되는 집합적 효율성이 사이버언어폭력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에 주 관심을 갖는다. 집합적 효율성의 논의에서처럼 사이트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과 신뢰, 그리고 비

공식적 통제력이 높을 때 그 구성원은 언어폭력을 덜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영향력은 반드시 사이트 구성원들 간의 강한 연결망이나 유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인터넷사이트의 연결망이나 유대와 상관없이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사이트내의 구성원들은 언어폭력을 덜 할 것이고, 반대로 집합적 효율성이 낮은 사이트내의 구성원들은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사이버언어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익명성이나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사이버언어폭력 용인태도와 같은 개인특성요인이 주요 설명요인으로서 제시되어 왔던 만큼(이성식, 2006 a,b) 여기서는 이들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¹⁾ 물개성화이론(Zimbardo, 1969)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에서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내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공격적인 언행, 즉 사이버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은 자아의식 감소, 상대에 대한 실재감 부족 등으로 인한 자기중심적, 탈규범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이버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Lea et al., 1992; 이철선, 2003).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00)의 일반이론에서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성향으로서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는데, 사이버언어폭력 또한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순간적인 화를 표현하거나 또는 그 순간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 사이버언어폭력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민수홍, 2006). 마지막으로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용인태도와 관련하여 자아의식 이론(Matheson and Zanna, 1988)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은 현실공간에서와는 달리 공격 자아의식이 낮아지고 사적 자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평소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즉 사이버언어폭력에

1) 실제로 이성식의 2006년도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범죄학의 주요요인들인 일상긴장이나 사회유대, 비행친구의 수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은 낮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서 익명상황, 그리고 주로 개인수준의 요인들로서 자기통제력이나 태도와 같은 요인들이 그 영향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험연구결과를 근거로 그 요인들을 주요 통제변인들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이버언어폭력을 더욱 쉽게 저지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김수정, 2004; 이성식, 2006 a,b).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집합적 효율성을 사이버언어폭력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설명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던 익명성,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언어폭력 용인태도를 통제변인으로 다루어 그 영향력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 밖에도 이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 및 사회배경요인으로서 부모의 학력, 가족의 수입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변인측정

가.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남녀 중학생으로 한다. 조사를 위해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비율적으로 고려하여, 1개의 남자학교, 1개의 여자학교, 4개의 남녀공학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6개 학교에서는 각각 3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 학급당 30명씩, 한 학교로는 100명씩을 조사한 결과 총 576명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는 2007년 6월 27일부터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나. 변인측정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룬 사이버언어폭력은 게시판이나 채팅, 이메일, 쪽지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에서 대화내용 중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 비방, 허위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인터넷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인터넷게시판상의 언어폭력의 경우 채팅, 이메일, 쪽지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언어폭력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는데 이는 채팅, 이메일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터넷게시판의 경우 그 대상이 사이트의 구성원으로서 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 비해 다수의 접근성이 높아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이라 할지라도 파급의 효과가 커 그 피해가 다른 유형에서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터넷게시판상에서의 언어폭력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게시판상에서의 언어폭력의 경험을 욕설, 특정인 비방/비하/명예훼손,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인신공격, 게시판 도배 및 성희롱 등의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빈도를 질문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인 집합적 효율성은 기존 연구에 의거하여 응집력과 신뢰로서의 사회자본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각각 나누어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은 Putnam(2000)의 일곱 개의 차원 중, 정치, 종교의 참여를 제외하고 사회신뢰, 비공식 사회연계, 이타 및 봉사성, 시민의 참여 등과 관련되는 문항들과(Messner et al., 2004), 범죄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문항들(Sampson et al., 1997; Browning et al., 2004)을 사용하였다. 집합적 효율성은 거시차원의 속성을 갖는 변인으로서 인터넷사이트별로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응답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염두에 두고 그 사이트 게시판의 속성을 개인수준에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시판을 중심으로 “그 사이트 게시판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다”, “그 사이트 게시판 구성원들은 유사한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 “그 사이트 게시판 구성원들은 서로 친밀하다”, “그 사이트 게시판 구성원들은 서로 잘 돕는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범죄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고 기대되는 사회통제에 의해 얼마나 통제되고 제재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Sampson et al., 1997), 기존의 오프라인에의 질문들을 응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맞게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게시판을 중심으로 “그 사이트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비방/욕설의 글을 올린다면 구성원들이 그러지 말라는 제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사이트 게시판에 불건전한 내용물이 올려

진다면 즉각 삭제될 것이다”, “그 사이트 게시판은 서로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하는 규범이나 규칙이 있다”, “그 사이트 구성원들은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응집력/신뢰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각각 나누어 측정된 요인을 집합적 효율성의 변수로 모두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alpha=.640$).²⁾

통제변인으로서의 익명성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게시판에서 주로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익명을 사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그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로 질문하여 이를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 연구들에 의거하여, 충동성, 위험추구성, 현재지향성, 무계획성을 나타내는 문항들(Grasmick et al., 1993)을 사용하였다. 즉 “나는 종종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생각 않고 무엇이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계획 없이 되는대로 한다”, “나는 기분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나는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등을 포함한 아홉 개 문항을 질문하여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80$).

개인의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에 대한 용인태도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게시판 악플에 대한 일반적 태도 및 Sykes와 Matza의 중화의 기술의 항목을 포함한 질문을 사용하였다(Matsueda, 1982). 이에 “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악성댓글)은 나쁜 행동이다(역부호화)”, “악성댓글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튀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악플을 달아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내 동료나 친구, 우리 집단을 비난할 때에는 욕설과 댓글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였고 각각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집합적 효율성은 응집력/신뢰와 비공식적 통제력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변인으로서 응집력/신뢰와 비공식적 통제력 각각의 신뢰도 값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포괄한 집합적 효율성의 신뢰도 값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두 개의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론에 충실하고자 집합적 효율성을 하위개념으로 나누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alpha=.626$).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서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만으로 나이를 질문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조사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질문하였다.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의 5개 등급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초졸’의 빈도가 매우 낮아 이를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가정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월평균 소득을 알아보았고,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그리고 ‘901만원 이상’에 이르는 10개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낮은 빈도의 항목을 제외하여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600만원’, ‘601-700만원’, ‘701-800만원’, ‘801만원 이상’으로 묶어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총 대상자 576명 중 남학생이 262명으로 45.5%를, 여학생이 314명으로 54.5%를 차지해 여학생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1세부터 15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12세에서 14세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3세가 243명(4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과 관련하여 먼저 응답자들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31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99명으로 34.5%를 차지하였다. 어머니는 고졸이 261명(45.3%)으로 대졸이하인 179명(31.1%)보다 많아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의 학력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한 달 평균 가족수입을 통한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가족의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200만원대가 107명(18.6%)으로 가장 많았고, 300

만원대가 90명(15.6%), 200만원 이하인 100만원대가 88명(15.3%)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명(%)	
성 별	남 자	262(45.5)
	여 자	314(54.5)
연 령	11세	3(.5)
	12세	106(18.4)
	13세	243(42.2)
	14세	151(26.2)
	15세	73(27.2)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48(8.4)
	고 졸	199(34.5)
	대 졸	231(40.1)
	대학원 이상	75(13.0)
	무응답	23(4.0)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56(9.7)
	고 졸	261(45.3)
	대 졸	179(31.1)
	대학원 이상	56(9.7)
	무응답	24(4.2)
가족의 월수입	200만 원 이하	88(15.3)
	201~300만 원	107(18.6)
	301~400만 원	90(15.6)
	401~500만 원	71(12.3)
	501~600만 원	38(6.6)
	601~700만 원	21(3.6)
	701~800만 원	17(3.0)
	801만 원 이상	43(7.5)
	무응답	101(17.5)
총		576(100.0)

2. 사이버언어폭력 실태

조사대상자들이 직접 행한 사이버언어폭력의 가해경험과 관련하여 인

터넷게시판에서의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언어폭력을 하였는지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2-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을 직접 행한 빈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게시판에서 욕설을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응답이 12.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게시판 도배, 비방/비하/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언비어의 유포의 경험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사이버언어폭력 유형별 실태

<단위 : 명(%)>

구 분	없음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무응답
욕 설	503(87.3)	40(6.9)	33(4.0)	9(1.5)	1(.2)
비방/비하/명예훼손	555(96.4)	10(1.8)	6(1.1)	4(.8)	1(.2)
허위사실 유포/유언비어	557(96.7)	12(2.1)	4(.7)	2(.4)	1(.2)
인신공격/협박/위협	561(97.4)	11(1.9)	2(.4)	1(.2)	1(.2)
게시판 도배	544(94.4)	19(3.2)	8(1.4)	4(.8)	1(.2)
성희롱	562(97.6)	9(1.5)	1(.2)	2(.4)	2(.4)
총	576(100.0)				

<표 2-2> 인터넷 게시판 유형별 언어폭력 실태

<단위 : 명(%)>

구 분	없음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상	무응답
포털사이트 뉴스게시판	59(68.1)	11(12.6)	3(3.4)	4(4.4)	10(11.5)
언론/방송사 게시판	64(73.6)	8(11.6)	2(2.2)	1(1.1)	10(11.5)
공공기관 게시판	68(78.2)	8(9.2)	-	1(1.1)	10(11.5)
일반기업/쇼핑몰 게시판	68(78.2)	7(8.2)	1(1.1)	2(2.2)	9(10.3)
커뮤니티/동호회 게시판	51(58.6)	16(18.3)	7(8.3)	4(4.5)	9(10.3)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	44(50.2)	12(13.3)	15(18.9)	7(7.3)	9(10.3)
게임/오락/성인사이트게시판	45(51.7)	12(13.8)	14(16.4)	7(7.8)	9(10.3)
동영상 UCC관련게시판	62(71.3)	7(8.0)	6(6.9)	3(3.5)	9(10.3)
기타	63(72.4)	10(11.5)	2(2.4)	3(3.4)	9(10.3)
총	87(100.0)				

사이버언어폭력을 직접 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어떤 종류의 인터넷게시판에서 언어폭력을 하였는가를 조사한 결과(<표 2-2>) 블로그/미니홈피 게시판을 통해서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게임/오락/성인사이트 게시판에서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비율이 38%로 나타났다으며, 커뮤니티/카페/동호회 게시판을 통하여서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31.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블로그/미니홈피나 커뮤니티/카페/동호회의 활동은 특히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주로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언어폭력의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청소년이 인터넷을 주로 게임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게임 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도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포털뉴스 게시판이나 언론사/방송사 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 비율이 각각 20.4%, 14.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주요 변인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를 보면(<표 3>) 익명성의 평균이 3.10으로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익명으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 평균점수는 23.29로서 9-45범위에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또한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에 대한 용인태도는 평균 8.25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이 좋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합적 효율성은 평균점수가 26.44로 8-40범위에서 볼 때 중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은 0부터 200까지의 범위에서 평균점수가 2.91로 인터넷게시판 상에서의 언어폭력의 경향은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표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익명성	3.10	1.30	1-5
낮은 자기통제력	23.29	7.52	9-45
용인태도	8.25	3.05	4-18
집합적 효율성	26.44	6.03	8-40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	2.91	16.56	0-200

4. 다중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으로서 인터넷사이트별 집합적 효율성 및 그 밖의 통제변인들이 사이버언어폭력에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고 있다.

<표 4>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	
	b	β
남 성	.209*	.133
연 령	-0.040	-.047
부교육	0.043	.048
모교육	-0.065	-.073
수 입	0.004	.013
익명성	0.060#	.101
낮은 자기통제력	0.002	.015
용인태도	0.016	.062
집합적 효율성	-0.020**	-.151
상 수	.891	
R제곱	.080	
F검증	3.707***	

#p<.10 : *p<.05 : **p<.01 : ***p<.001

그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의 집합적 효율성은 $p < .01$ 수준에서 인터넷게시판 언어폭력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은 인터넷사이트별로 형성되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나 언어폭력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사이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며 인터넷사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통제력이 강할수록 그 구성원들은 언어폭력을 덜 저지르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의 사이트 환경일 때 그 구성원들이 언어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여 남학생이 $p < .05$ 의 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명성 또한 다소 미약하지만 $p < .10$ 의 수준에서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익명의 상황에서의 개인은 현실공간의 구속으로부터 탈억제되어 공격적인 언행 등의 사이버언어폭력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몰개성화이론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오던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용인태도의 개인특성 요인들은 사이버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사이버공간 전체에서의 범죄나 언어폭력에 주목했지만 이 연구는 인터넷게시판상에서만 언어폭력에 주목했는데, 그 결과의 차이가 이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 기존에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오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나 개인요인이 아닌 사이버공간이나 인터넷사이트의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의 집합적 효율성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증명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의 집합적 효율성, 즉 사이버공간이나 개별 인터넷사이트에 형성되어 있는 구성원들간의 신뢰나 언어

폭력 행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수준으로서의 사회환경적 특성은 사이버 언어폭력에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 및 일탈행위에 대한 비공식 제재 및 통제력의 형성, 다시 말해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언어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작은 단위로는 개별 인터넷 사이트, 큰 단위로는 전체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로 간에 공고한 신뢰를 형성하고, 사이트 내에서 또는 인터넷공간 내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서 언어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인터넷 규범의 마련 등과 같은 자율적인 인터넷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이버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이 스스로 모니터링 그룹을 조직하여 사이버언어폭력행위를 제재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네티켓 운동 등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건전한 인터넷문화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모니터링 모임인 사이버패트롤 활동이나 캠페인 운동으로서의 사이버명예시민운동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그 영향력이 다소 미약하였지만 익명성의 요인 또한 사이버언어 폭력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익명성과 관련된 대안으로서 실명제의 실시 등의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안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 적절한 것인지, 또한 실명제의 실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외에도 통제변인으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언어폭력을 더 빈번하게 저지른다는 결과를 통해서 사이버언어폭력의 대응방향에 있어 남학생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던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요인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측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게시판에서의 언어폭력을 다룬다는 이유로 주로 ‘악성댓글’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용인하는지의 태도를 질문했고, 아울러 일반적 태도보다는 중화의 기술의 내용을 사용하였는데, 이 때문인지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익명성이나 개인차원의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이버언어폭력의 예방이라는 사회환경적 차원에서의 대안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사이버언어폭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사이트 또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사회환경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본 연구는 집합적 효율성을 거시차원이 아닌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잠정적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차후에는 사이버공간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69-88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27-47.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 (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79-129
- 송경재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221-255
- 이성식 (2004).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팅에 미치는 영향에

- 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165-185
- _____ (2006a). 사이버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421-440
- _____ (2006b)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179-200
- _____ (2006c). 사이버 범죄와 시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13(3):69-86
- 이철선 (2003). 가상 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8(1):3-30
- 장종인 (2006).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 18(7):1-26
- 정찬모 (2003). 실증조사를 통해 본 사이버윤리와 규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157-177
- Bellair, P.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Networks. *Criminology* 35: 677-704.
- Browning, C.R., Feinberg, S.L. and Dietz, R.D.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rsik, R.J. and Grasmick, H.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Lexington Books.
- Coster, S.D., Heimer, K. and Wittrock, S.M. (2006). Neighborhood Disadvantage, Social Capital, Street Context and Youth Viol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 723-753.
- Etzioni, A. (2001). *Next: The Road to the Good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Gibson, C.L., Zhao, J., Lovrich, N.P. and Gaffney, M.J.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537-565
- Gottfredson, M.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Grasmick, H., Tittle, C.R., Bursik, Jr. R. and Arneklev, B.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Kasarda, J.D. and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28-339
- Lea, M., O'Shea, T., Fung, P. and Spears, R. (1992). Flaming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M. Lea(ed), *Context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Matheson, K. and Zanna, M.P. (1988). The Impac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 Self-awar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 221-233.
- Matsueda, R.L. (1982). Testing of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489-504
- Messener, S.F., Baumer, E.P. and Rosenfeld, R. (2004).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and Rates of Criminal Homici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12): 882-903.
- Morenoff, J.D, Sampson, R.J. and Raudenbush, S.W.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2): 517-533.
-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ampson, R.J., Raudenbush, S.W. and Earl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27:918-923
- Sampson, R.J., and Raudenbush, S.W.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03-651

- Shaw, C. and McKay, H.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lver, E. and Miller, L.L. (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 551-584.
- Villarreal, A. and Silva B.F.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1725-1754
- Wilson, W.J. (1996). *When Work Disappears*. Knopf.
- Zimbardo, P.G. (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Internet Collective Efficacy and Cyber Linguistic Violence

Lee, Seong-Sik* / Hwang, Ji-Young**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e effect of a social factor as collective efficacy on youth's linguistic violence on cyber-space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its effect with anonymity and individual factors(low self-control and attitudes favorable to cyber linguistic violence) emphasized in prior research. Using data from 576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llective efficacy has the largest effect in explaining cyber linguistic violence comparing with other controlling factors. Results imply that social strategies such as building mutual trust and controlling cyber linguistic violence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cyber linguistic violence.

주제어 : 집합효율, 사이버언어폭력, 익명성

Keywords : Collective Efficacy, Cyber Linguistic Violence, Anonym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Ph.D. in Sociolog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